

去聲의 변화와 문법적 기능의 쇠퇴*

愼 鏞 權**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去聲別義 현상의 발전과 쇠퇴 |
| II. 上古 시기 去聲 접사 *-s의 존재와 문법적 기능 | IV. 去聲의 성격과 문법적 기능의 쇠퇴 |
| | V. 맺음말 |

I. 머리말

上古 시기의 중국어에는 음운적 또는 형태적 수단에 의하여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품사 전환, 태(voice), 대명사, 부정사 등과 관련된 현상에서 음운적 또는 형태적 수단에 의한 문법적 기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성조와 관련된 四聲別義 현상은 형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음운 변환에 의하여 품사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많은 주목을 끌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음운적 또는 형태적 수단은 이후 통사적 수단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존재는 중국어가 통사적으로 언어유형적인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¹⁾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A-A00098)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去聲은 상고 시기에 모종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고대 중국어에서 음운적 수단에 의하여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 대표적인 사례인 四聲別義 현상에서도 거성은 다른 성조보다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거성 변화의 관점에서 거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고 중국어에서 거성이 가지고 있던 문법적 기능이 어떠한 양상으로 쇠퇴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고대 중국어에 나타난 거성의 문법적 기능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인 거성 접사 *-s의 존재 여부 문제와 四聲別義 현상에서의 거성의 역할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거성의 변화와 문법적 기능의 쇠퇴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중국어가 언어 유형에서 어떠한 통시적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上古 시기 去聲 접사 *-s의 존재와 문법적 기능

성조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성조가 접사(또는 韻尾)에서 온 것이라는 견해는 많은 주목과 함께 논란을 야기하였는데, “去聲 *-s 접사 기원설”이나 “上聲 *-ʔ 접사 기원설”이 대표적이다.²⁾ 특히 상고 시기 入聲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去聲 접사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Haudricourt(1954a, b)에서

- 1) 음운교체와 같은 음운적 수단 또는 접사 첨가와 같은 형태적 수단에 의해서 문법 범주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통합어(synthetic language)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차차 사라지면서 어순 등의 통시적 수단으로 문법적 기능이 대체되는 것은 통합어에서 분석어(analytic language)로 유형적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은희(2011: 588)에 따르면 통합어와 분석어는 개별 언어에서 발생하는 접사화의 양에 의한 부류인데,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되는 언어가 분석어(고립어)이며 어근에 접사 형태소가 부가되어 발화를 완성하는 언어를 통합어라고 한다.
- 2)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고 중국어 去聲字의 음절 말에 *-s로 재구되는 요소에 대하여 “接詞”, “韻尾”, “後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古漢越語의 중국어 借用字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중국어의 거성이 *-s 접사에서 기원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한 이후, 일부 학자들은 中古 중국어의 去聲字가 상고 시기에 *-s 접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s 접사의 부가에 의하여 품사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하였다.³⁾ 실제로 이처럼 거성의 성조 기능을 수행하는 *-s 접사의 부가에 의해 품사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현대 중국어와는 달리 고대 중국어에서 음운적·형태적 수단이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상고 시기에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 *-s 접사에서 거성이 기원하였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거성이 상고 중국어의 *-s 접사에서 기원하였다는 주장은 주로 서구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일부 중국학자가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주장은 한편으로는 생소한 것일 수 있는데,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거성의 접사 *-s가 존재했다고 주장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상고 중국어의 韻文 자료에서 거성은 平聲, 上聲뿐 아니라 入聲과도 압운하는 경우가 있으며 入聲과의 관계가 특별히 밀접하다. 예를 들어 《詩經》의 “采薇” 二章에서는 “柔, 憂(幽部·平聲) / 烈, 渴(月部·入聲) / 定, 聘(耕部·去聲)”의 押韻字들이 성조와 韻部가 다름에도 叶韻을 하고 있다. 상고 중국어에서 入聲字와의 通押과 諧聲 현상은 中古 陰聲韻字 중 去聲字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중고 시기 거성에만 있었던 祭泰夫廢 네 개의 운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며 이들은 모두 -t 운미와 관계가 있다(Pulleyblank, 1962). 이는 거성이 입성의 운미(*-p, *-t, *-k)와 같이 자음성의 접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Baxter &

3) Pulleyblank(1962, 1973a, 1973b), 梅祖麟(1980), 鄭張尚芳(1994), Baxter & Sagart(1998), 潘悟云(2000) 등이 *-s 접사의 존재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Baxter & Sagart(1998: 57), Xu Dan(2006: 117)에서는 *-s 접사가 명사와 동사 사이에서 품사 전환을 하는 것 이외에도 형용사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전환(好 hǎo(형용사)/hào(타동사), 雨 yǔ(자동사)/yù(타동사))하거나 타동사를 사역 동사로 전환(王 wáng(타동사)/wàng(사역동사))시키는 등의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agart(1998: 56)에서는 *-s 접사가 입성 운미 *-p, *-t, *-k의 뒤에 붙어 형성된 *-ps, *-ts, *-ks가 단순화되고 *-s 접사도 소실되면서 거성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MC는 중고 중국어, H는 거성).

<표 1> 거성의 형성과정(Baxter & Sagart(1998: 56))

$$\begin{aligned} & * -Vp-s \searrow \\ & * -Vt-s \rightarrow -Vt-s \rightarrow -Vj-s \rightarrow MC. -VjH \\ & * -Vk-s \rightarrow -Vk-s \rightarrow -V-s \rightarrow MC. -VH \end{aligned}$$

둘째, 地名 등의 고유명사, 佛經에서의 譯音, 한국어와 일본어 등에 나타난 對音 자료 및 방언 자료를 거성의 *-s 접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 거성 *-s 접사의 존재를 주장한 초기의 연구 성과인 Haudricourt(1954a, b)에서는 베트남어에서의 중국어 借用字의 예를 들고 있고, Pulleyblank(1962)에서는 지명, 불경 등의 고대 중국어 역음 자료와 함께 漢代의 역음 자료를 다수 제시하고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많은 대음 자료 및 방언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음 자료와 방언 자료 중에서 고대 중국어의 거성 *-s 접사로 명확히 대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된 자료는 사실상 많지 않아서 이러한 자료를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점은 *-s 접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연구자들에게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셋째, 중국어의 去聲字는 티베트어에서 *-s 접사로 끝나는 어휘와 동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Pulleyblank(1973b: 113), 梅祖麟(1980: 432-433) 등에서는 중국어의 거성자가 티베트어에서 *-s 접사로 끝나는 어휘와 동원 관계에 있으며, 티베트의 라사 방언에서 *-s 접사가 소실하면서 하강 성조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중국어의 거성과 티베트어의 *-s 접사의 기능이 유사하고 둘 사이에 同源詞 쌍이 나타나서 대응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상고 중국어의 거성이 *-s

접사에서 기원하였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어의 거성과 티베트어의 -s 접사 사이에 보이는 대응 관계가 古漢越語의 예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Haudricourt(1954a, b), Pulleyblank(1962)). 古漢越語의 예는 “거성 *-s 접사 기원설”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주요 근거가 되었는데, Haudricourt(1954a, b) 등에서는 베트남어 중의 중국어 借用字에 근거하여 접사 *-h(<*-s)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어의 “問聲”과 “跌聲”이 중국어의 거성과 대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한 근거들은 거성이 접사 *-s에서 기원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다음에서는 각각의 근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거성 접사 *-s의 언어학적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거성이 접사 *-s로부터 기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의문을 표시하였는데, 이들이 접사 *-s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표시한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고 중국어의 조어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상고 중국어에 성조가 없고 자음 접사만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丁邦新(1998: 84)에서는 상고 중국어에서 병렬어 성분이 배열되는 순서가 80% 정도는 성조의 제약을 받는데, 만약 당시에 성조가 없고 자음성의 접사만 있었다고 한다면 “損益, 溝洫, 賓客, 商賈, 選擇, 琴瑟, 飢渴, 麻麥” 등과 같은 어휘나 “陳蔡, 魯衛, 秦楚, 齊楚, 韓魏” 등과 같은 國名에서 글자가 반대의

4) Haudricourt(1954a)에서는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寄, 義, 露, 訴, 墓” 다섯 글자를 예로 제시하였고, 이후의 연구에서 例字를 보충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하여 丁邦新(1998: 87-90)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첫째, 古漢越語에 나타나는 중국어 차용자가 어느 시기, 어느 방언에서 온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둘째, 예로 든 글자들 중 상고 중국어에서는 동일한 韻部나 성조에 속하는 글자들이지만 베트남어에서는 발음 차이가 매우 큰 경우가 있다. 셋째, 중국어에서는 동일한 거성인데, 어떤 조건하에서 베트남어의 問聲과 跌聲으로 나누어지는지 의심스럽다. 넷째,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古漢越語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왜 이러한 방식으로 배열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둘째, 《詩經》의 押韻은 동일 성조자 사이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조의 글자들이 서로 압운하는 예가 많이 나타나는데, 다른 성조의 글자들이 각각 다른 자음 접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은 설명하기 어렵다(李方桂, 1980: 32-33; 丁邦新, 1998: 99-102). 따라서 丁邦新(1998)에서는 《詩經》 시기에 중국어 성조는 자음 접사가 아닌 音高의 형식으로 존재했으며, 성조가 접사에서 기원하였다면 漢藏 祖語에서 이러한 현상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적어도 《詩經》 시기에 자음성의 성조 접사의 흔적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平聲·上聲·去聲은 -d 韻尾를 가지고 있었으며, 去聲의 -d 韻尾는 平聲·上聲보다 더 오래 남아 있어서 魏晉 시기까지도 -t 韻尾 入聲字와 通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詩經》 등 先秦 자료의 押韻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은 去聲 접사 *-s가 존재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재구에 이용된 자료가 대부분 對音 자료로 주로 地名 등의 고유 명사와 佛經 중의 譯音인데,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료 자체의 시기나 방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丁邦新, 1998: 91). 또한 對音 자료는 그 과정에서 정확한 對音을 어렵게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對音 자료를 핵심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가진 대음 자료는 핵심 자료보다는 방증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Haudricourt(1954a, b) 이후 去聲 접사 *-s의 존재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저작들에서는 핵심 논거로 사용한 대음 자료가 해당 언어로 차용된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에서 제시한 대음 자료의 상당수 예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丁邦新, 1998: 86-96).⁵⁾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근거로 제시한 방언에서의 예도 먼저 중국어와 티베트어에서 모두 고대에 *-s가 존재했다고 가정

한 후 중국어 방언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을 찾아내어 논증하는 전형적인 순환논리라는 점에서 정확한 논거가 될 수는 없다(張雁, 2009: 518-519).

넷째, 중국어와 티베트어는 성조의 발생 과정이 다르고 그 변화의 규율도 달랐기 때문에 漢藏語 비교언어학의 방법에 기초하여 중국어 성조의 기원과 그 역사적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徐通鏞, 2001; 張雁, 2009: 519-521). 티베트어에서 성조가 생긴 것은 聲母의 濁音清化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티베트어의 *-s 접사는 사실상 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중국어 거성자와 대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성이 아닌 성조의 글자와 대응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張雁, 2009: 520-521).⁶⁾ 따라서 漢藏語 비교언어학의 관점에서 티베트어의 -s 접사와 중국어의 거성을 유효하게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전에 면밀히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으며, 계통적인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관시켜 연구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Pulleyblank(1962), 梅祖麟(1980), Baxter & Sagart(1998) 등에서는 去聲別義 현상에서 중국어 거성의 기능이 티베트어의 *-s 접사와 유

- 5) 李香(2009)에서는 月支國人인 支識가 번역한 梵漢對音 자료인 《道行般若經》, Pulleyblank(1962)에서 제시한 일본어 對音 “對馬 = tusima”, 鄭張尚芳(1994: 51)에서 제시한 일본어에서의 중국어 차용어 “柰 nasi, 芥 kalasi, 假 kasu 借貸, 蓋 kabusu 覆” 등을 분석하여 이들 자료를 *-s 접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의 기초 위에서 외국어에 나타난 중국어 차용어를 증거로 삼기 이전에 이러한 차용어가 해당 외국어 본래의 것인지 아니면 중국어에서 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6) 平山久雄(1991: 149-150)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티베트 라사어에서 濁聲母의 清化와 前綴 자음의 소실에 따라 高調와 低調의 구분이 생겼고, 高調와 低調는 세 종류의 韻尾에 따라 각각 3개의 성조를 형성하여 총 6개의 성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티베트 라사어에서도 促韻尾에 -s가 있고 중국어의 거성과 같이 韻尾의 긴장 성분이 끝 부분의 音高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상고 거성과 완전히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거성이 접사 *-s에서 기원하였다는 주장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사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고대 중국어에서 거성의 *-s 접사가 이러한 別義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s 접사가 소실되면서 거성으로 변했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孫玉文, 2007).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고 시기 거성 접사 *-s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견해와 관련 자료에 나타난 양상에 근거하여 거성 접사 *-s의 언어학적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거성 접사 *-s는 漢藏語 비교언어학의 중요 성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근거에 기반하고 있고 적합한 비교 방법에 의하여 재구된 형태이다. 즉 漢藏語 비교언어학 연구자들에 의하여 상고 중국어의 많은 문법적 요소들이 재구되었지만 거성 접사 *-s만큼 탄탄한 근거 위에서 재구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상고 중국어 이전의 상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거성 접사 *-s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된 것은 주로 방증들로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s 접사의 재구에 사용한 자료가 어떤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상고 중국어의 *-s 접사를 재구하는 문제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기의 언어적 요소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s 접사의 재구와 함께 그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 對音 자료나 방언 자료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유효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이후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거성 접사 *-s는 비교적 적합한 비교 방법에 의하여 재구된 형태이지만 결국은 재구된 형태라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재구형이란 아무리 잘 재구된 형태라고 해도 실제로 존재했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것이며, 다만 재구된 형태에서 다시 현실적 자료로 돌아와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다. 특히 거성 접사 *-s의

재구에 핵심적으로 이용한 자료가 대부분 對音 자료라는 점에서 이 자료가 근거하는 시기와 방언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재구형의 신뢰성은 더욱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s 접사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對音 자료나 방언 자료가 아닌 문헌 자료 등 기록으로 존재하는 중국 자료를 통해서도 거성 접사 *-s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성 접사 *-s의 존재를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는 모두 《詩經》의 압운 상황 등과 같은 동일한 자료를 각자의 견해를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즉 동일한 자료에 대한 서로 다른 분석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상이한 견해가 동일 자료에 대한 상이한 분석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董同龢(1973: 188-189)에서는 先秦 자료에서의 150字 정도의 예에서 함께 叶韻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平·上·거성 간에는 많고, 거성과 입성 간에도 많으며, 平·상성과 입성 간에는 극히 적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平·上·거성 세 성조가 兼叶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모두 陰聲字이기 때문이고, 거성과 입성은 韻尾가 다르지만 調值가 유사하기 때문에 兼叶이 많으며, 平·상성 두 성조와 입성의 兼叶이 극히 적은 것은 韻尾도 다르고 調值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詩經》에 나타난 平·上·거·입 사성의 押韻 상황을 보다 전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2>에서는 張日昇(1968)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2> 《詩經》에 나타난 四聲의 押韻 상황(張日昇, 1968)

	平	上	去	入
平	2186	203	159	5
上	158	882	99	18
去	134	67	316	64
入	5	21	97	732

위의 통계를 근거로 丁邦新(1998)에서는 각 성조의 글자가 獨用하는 빈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合用의 빈도는 調類를 나누는 데 영향을 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표 2>에 제시된 통계는 위에서 언급한 董同龢(1973)의 분석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詩經》의 押韻 상황을 고려하면 상고의 거성 접사 *-s의 존재를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는 모두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헌 기록에 나타나는 양상은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서 결국 *-s 접사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헌적 증거를 찾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거성 접사 *-s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지만 *-s 접사가 비교적 적합한 비교언어학적 방법을 통하여 재구된 형태인 만큼 이를 통하여 고대 중국어의 상황과 중국어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언어학적 측면에서 *-s 접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로 보인다. 물론 거성이 상고 시기 *-s 접사에서 기원하였다면 분석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성이 수행한 문법적 기능과 그 기능의 쇠퇴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비록 *-s 접사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할 지라도 거성이 고대 중국어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이 있었으며 다른 성조와 구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III. 去聲別義 현상의 발전과 쇠퇴

고대 중국어에는 “四聲別義”로 불리는 주목할 만한 언어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글자가 성조의 교체에 따라서 다른 의미나 품사를 나타내는 현상이다. 四聲別義 현상에서는 거성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 현상에서 나타나는 성조의 교체는 대부분이 거성과 거성이 아

닌 성조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⁷⁾ 이처럼 四聲別義 현상은 고대 중국 어에서 거성이 문법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거성의 접사 *-s도 四聲別義 현상을 통하여 그 존재의 타당성을 일부 입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거성과 거성이 아닌 성조 사이에서 나타난 四聲別義 현상 즉 去聲別義 현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고 쇠퇴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去聲別義의 대표적인 문법적 기능은 거성이 아닌 성조에서 거성으로 성조가 교체됨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것인데, 다음은 기존의 연구에서 去聲別義 현상을 통해 동사가 명사 또는 명사가 동사로 전환된 것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예이다.

<표 3> 동사와 명사 간 품사를 전환하는 去聲別義 현상의 예⁸⁾

1. 동사가 명사로 전환된 경우
 - ① 織 入聲, 動詞 / 織 去聲, 名詞
 - ② 宿 入聲, 動詞 / 宿 去聲, 名詞
 - ③ 度 入聲, 動詞 / 度 去聲, 名詞
 - ④ 量 平聲, 動詞 / 量 去聲, 名詞
 - ⑤ 處 上聲, 動詞 / 處 去聲, 名詞

- 7) 梅祖麟(1980: 427)에 따르면 四聲別義 현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四聲의 變讀을 통해 어휘의 성격이나 품사를 분별하는 것은 상고 중국어의 일종의 조어법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동사로 본다면 대다수의 경우에서 基本詞는 거성이 아닌 성조를 가지는 반면 派生詞는 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거성이 아닌 본래의 성조는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본래의 의미가 변화하게 되면 거성으로 다른 의미나 품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 8) <표 3>과 <표 4>에서 제시하는 去聲別義 현상의 예는 Downer(1959), 周法高(1962), 王力(1980), 梅祖麟(1980), Baxter & Sagart(1998), 孫玉文(2007)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이다. <표 3>에서 명사가 동사로 전환된 경우로 제시된 예 중에서 ①~④의 네 가지 예는 Downer(1959), 周法高(1962)에서 去入通轉을 통해 명사에서 동사로 변화하는 예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梅祖麟(1980: 437-438)에서는 ①~④ 중 ④의 “量”만이 진정한 예이고, ①~③의 세 가지 예는 주로 《經典釋文》에 나타난 것으로 先秦 시기에 실제로 나타난 예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2. 명사가 동사로 전환된 경우

- ① 惡 入聲, 名詞 / 惡 去聲, 動詞
- ② 樂 入聲, 名詞 / 樂 去聲, 動詞
- ③ 肉 入聲, 名詞 / 肉 去聲, 動詞
- ④ 噓 入聲, 名詞 / 噓 去聲, 動詞
- ⑤ 釘 平聲, 名詞 / 釘 去聲, 動詞

위의 <표 3>에 제시된 去聲別義 현상은 크게 보면 성조 변화에 따라 동사가 명사로 전환되는 유형과 명사가 동사로 전환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⁹⁾ 그런데 상고 중국어에서 去入通轉을 통하여 동사가 명사로 전환되는 유형의 수가 반대 방향의 유형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로 미루어, 동사가 명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去入通轉 현상이 활발히 나타나는 《詩經》 이전의 早期 上古漢語에서 이미 존재했으며 명사가 동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去入通轉 현상이 이미 쇠퇴한 東漢 시기에 유추 작용에 의하여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梅祖麟, 1980). 이는 상고 시기에는 거성과 입성이 서로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밀접하다가 점점 멀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去聲別義 현상이 상고 시기 후반 이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해 준다.¹⁰⁾ 명사와 동사 사이의 품사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 이외에 기존의 연구에서 去聲別義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한 예를 추가로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9) 鄭張尙芳(2004: 24)에 따르면 이 두 경우는 현대의 지역 방언에서도 여러 양상으로 계승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北京方言에서는 동사가 명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활발하게 나타나며, 溫州方言과 같은 南方方言에서는 명사가 동사로 전환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 10) 清代의 많은 학자들은 四聲別義를 六朝 經師가 만든 讀書音에서의 “讀破” 현상으로 보았으나, 상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구어 및 각 방언에서도 동일한 글자가 명사와 동사인가에 따라 성조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周祖謨(1966), 梅祖麟(1980)).

<표 4> 去聲別義 현상의 또 다른 예

- ① 買 上聲, 內向動詞 / 賣 去聲, 外向動詞
- ② 聞 平聲, 內向動詞 / 問 去聲, 外向動詞
- ③ 高 平聲, 形容詞 / 高 去聲, 名詞
- ④ 廣 上聲, 形容詞 / 廣 去聲, 名詞
- ⑤ 惡 入聲, 形容詞 / 惡 去聲, 他動詞
- ⑥ 遠 上聲, 形容詞 / 遠 去聲, 他動詞
- ⑦ 語 上聲, 自動詞 / 語 去聲, 他動詞
- ⑧ 飲 上聲, 他動詞 / 飲 去聲, 他動詞(二重目的語)

<표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去聲別義 현상은 동사와 명사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內向動詞와 外向動詞, 형용사와 명사, 형용사와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사이에서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상고 시기에 去聲別義 현상은 시간적인 층위를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활발히 나타나던 이 현상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쇠퇴하였고 그 쇠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통계에 근거하여 四聲別義 현상에 따른 성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萬獻初(2004: 59)에 따르면 《經典釋文》에서 나타나는 성조교체 현상 중에서 거성과 거성이 아닌 성조 사이의 교체가 92.7%를 차지하고 있다. 舒志武(2002: 55)에서는 周祖謨(1966)의 해석에 근거하여 四聲別義 현상에서 나타나는 성조 교체의 통계를 제시하였는데, 각각의 경우에서 성조 교체의 수는 “평성 → 거성” 74, “상성 → 거성” 38, “입성 → 거성” 6으로 거성이 아닌 성조가 거성으로 교체된 경우가 전체 122 예의 97%를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평성이 상성으로 변한 4개의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성이 아닌 성조가 거성으로 교체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변조의 순서는 “평성 → 상성 → 거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거성은 四聲別義 현상에서 이후에 출현한 파생된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詩經》에서의 다른 성조 간의 押韻 상황에 근거하여 董同龢(1973)에서는 평·상·거성 세 성조가 調値는 다르지만 韻尾(*-b, *-d, *-g)가 같고(異調同尾), 거성과 입성은 韻尾가 다르지만 調値가 유사하며(同調異尾), 평·상 두 성조와 입성은 韻尾도 다르고 調値도 차이가 큰 것(異調異尾)으로 보았고, 이 견해는 이후 《詩經》의 通押 상황을 설명하는 연구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四聲別義 현상에서 나타나는 성조의 교체는 대부분이 거성과 거성이 아닌 성조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거성이 평·상·입성 세 성조와는 구분되는 또 하나의 특성 즉 *-s 접사와 같은 요소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통계와 자료를 통해 보면 去聲別義 현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去入通轉을 통해 동사에서 명사로 변화하는 현상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去聲別義 현상은 《詩經》 이전인 早期 상고 중국어(B.C 8~9세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이 시기에는 거성이 입성과 서로 押韻이 될 수 있을 정도로 調値와 韻尾가 유사하여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거성과 입성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게 되는데, 西漢 시기에 비하여 東漢 시기에는 通押의 수도 적고 通押이 나타나는 韻部도 국한된다는 점에서 去入通押이 급속하게 쇠퇴하게 된 것은 東漢 시기임을 알 수 있다(梅祖麟, 1980: 430-431; 羅常培·周祖謨, 2007: 76-114). IV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四聲別義 현상에서 變調 후의 성조가 대부분 거성인 것은 거성의 調値가 성조체계 내에서 변별적이면서 조음상 자연스러운 하강조였다는 점과 함께 거성이 다른 성조에 비해 늦게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본 성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平調의 평성이나 促急을 주요 성격으로 하는 입성으로는 언어의 변화에 따른 어휘 의미의 다양화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출현한 하강조의 변별성이 강한 성조인 거성이 이러한 기능을 나누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거성은 四聲別義 현상이 쇠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소속 글자를 늘려가게 된다. 거성자에 상고 *-s 접사

를 설정한다면 去聲別義 현상의 존재와 쇠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s 접사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거성이 가지고 있는 하강조의 특성은 去聲別義 현상을 유발한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去聲別義 현상은 이후 유추를 통하여 확대되었으나, 東漢 시기 이후 거성이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적인 성격의 성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쇠퇴하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쇠퇴 과정은 複音詞化的 경향이 강화된 것과 함께 어순과 같은 통사적 수단이 중국어에서 보다 핵심적인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결국 去聲別義 현상의 쇠퇴는 거성의 성격 및 調值와 함께 중국어의 유형적 변화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IV절에서는 거성의 성격과 문법적 기능의 쇠퇴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去聲의 성격과 문법적 기능의 쇠퇴

상고 중국어에서 거성은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점차 문법적 기능이 쇠퇴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절에서는 고대 중국어 거성의 성격과 調值가 거성의 문법적 기능의 수행 및 쇠퇴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고대 중국어의 성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주목할 만한 연구가 행해졌으나 여전히 그 성격과 調值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관련 기록과 성조의 변화 과정에 반영된 일부 증거 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그 면모를 추측할 수 있다.

먼저 거성의 調值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李敦柱(2003: 334)에서는 四聲의 調值에 대한 각 자료에서의 언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11) 韓國韻書인 《四聲通解》(1517)의 뒤에는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이하 翻譯凡

<표 5> 중국어 성조의 調值에 대한 관련 기록¹²⁾

四聲 書名	平	上	去	入
元和韻譜(唐)	哀而安	厲而舉	清而遠	直而促
玉鑰匙歌訣(明)	平道莫低昂	高呼猛烈強	分明哀遠道	短促急收藏
音論(清)	最長·輕遲	次之·重疾	次之·重疾	訕然而止, 無餘音·重疾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어 성조에 대한 전통적인 기록은 지극히 추상적인 묘사로 되어 있어 실제 四聲의 調值가 어떠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四聲의 調值에 대하여 추정을 시도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고대 중국어 四聲의 調值에 대한 주요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例)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어 四聲의 調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제시되어 있다. 즉 陰平은 “輕呼而稍舉”, 陽平은 “先低而中按 後厲而且緩”, 上聲은 “低而安”, 去聲은 “直而高”, 入聲은 “直而高”·“先低後厲而促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현대적인 기준에서 調值로 제시하면 陰平 *45, 陽平 *13, 上聲 *21(3), 去聲 *55, 入聲 *5 및 *23으로 추정할 수 있다(졸고(2008)). 翻譯凡例에 나타난 調值에 대한 기록은 매우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北方漢語를 반영하는 다른 자료들과는 성조 기술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明初의 수도인 南京의 官話에 영향을 받은 16세기 초의 北方官話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平山久雄(199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어의 성조가 통시적으로 순환적인 변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Mei(1977: 243)에 따르면 17세기 초의 자료인 《西儒耳目資》(1625)에서도 聲調 高低(pitch)의 순서를 陰平을 중간 높이로 하여 가장 높은 것은 去聲이고 다음으로 높은 것은 入聲이며 가장 낮은 것은 陽平이고 다음으로 낮은 것은 上聲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언급은 翻譯凡例의 기록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 12) 平山久雄(1991: 148-149)에서는 3세기 자료인 高誘注 《淮南子》, 《呂氏春秋》에서 상성이 “急氣言之”로, 거성은 “緩氣言之”로 그 調值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상성이 3세기부터 상성자 주모음에 강한 긴장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거성은 하강조로 끝 부분에 비교적 약한 긴장 성분을 가지고 있고 서서히 기류를 低音으로 방출하면서 점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調值적 특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Karlgren(1960)에서는 먼저 평·상·거성 세 성조의 字義에 근거하여 中古 성조의 調值를 추정한 후 상고 중국어 성조의 調值와 중고 중국어 성조의 調值가 같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현대 북경어도 기본적으로 상고 성조의 調值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王力(1980: 102)에서도 중고 중국어 성조의 調值는 상세히 알 길이 없으나, 명칭으로 미루어볼 때 평성은 평탄조(高平調), 상성은 상승조, 거성은 하강조, 입성은 일종의 促急한 성조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陳振寰(1986: 27-28)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와 견해에 근거하여 고대 시기 정치·문화의 중심이었던 黃淮 유역 일대에서 隋唐 시기 이전에 통용되던 중국어의 성조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평성 陰 *44 / 陽 *33, 상성 陰 *45 / 陽 *23, 거성 陰 *322 / 陽 *211, 입성 陰 *44 / 陽 *22(21, 22)로 제시하였다.

平山久雄(1991: 146-147)에서는 “官話祖調值初案”을 제시하고 중국어 성조 변화 규율을 고려하여 상고 중국어의 調值를 추정하였다. 결론적으로 聲母가 清音(陰調)일 때의 상고 중국어 성조의 조치를 평성은 *44 또는 *43(高平調 또는 약간의 하강조), 상성은 *35(상승조), 거성은 *31(低降調), 입성은 *31(低降促調)로 보았다.

丁邦新(1998: 106)에서는 中古의 平上去入 四聲이 4개의 상이한 성조였으며, 문헌과 對音 자료에 근거하여 平仄의 구별은 平調와 非平調의 구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平聲은 平調, 上聲은 高昇調, 去聲은 대략적인 中降調, 入聲은 短促調라고 추정하였는데, 上古의 성조도 中古의 平上去入 四聲과 대응하는 형태의 四聲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上古 성조의 調值도 中古와 유사했던 것으로 보았다.

舒志武(2002: 55)에서는 평성은 평탄조, 상성은 상승조, 거성은 하강조로 추정하였으며, 입성은 높이가 아닌 “短促”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평성 → 상성 → 거성”의 순서로 성조 변화의 추세가 나타나는데, 고대에서 현대까지 평성자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本調의 基本詞이고 四聲別義 현상에서 평성자를 비롯한 다른 성조의 글자가 변별성

이 큰 하강조의 거성자로 변한 예가 가장 많은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대 중국어에서 거성이 하강조의 調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제시된 견해들과 관련 기록을 살펴볼 때 거성과 그 調値는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거성이 언제부터 하나의 명확한 조류를 형성하고 高低의 형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다.¹³⁾ 《詩經》, 《楚辭》 등의 先秦韻文에서의 압운 상황을 통해 볼 때, 거성은 당시 일종의 부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명백한 하나의 調類를 이루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거성이 이 시기 성조의 형태로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조에 비하여 그 범위와 경계가 모호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상고 중국어에 거성이 존재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어긋나는 점이 있다. 西漢 시기에는 去入通押의 예가 상당 수 나타나지만 東漢 시기에 이르면 通押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通押이 나타나는 韻部도 상당히 국한된다는 점에서(羅常培·周祖謨, 2007: 76-114), 去聲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상고 시기 후반인 東漢 시기로 보인다. 魏晉 시기에 이르면 거성과 다른 성조와의 通押은 더욱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丁邦新(1998: 112-113)에서는 魏晉 詩賦 중 7천 條에 가까운 韻組를 분석하여 대부분의 韻組는 四聲이 각각 獨用을 하고 있으며 合用의 상황은 극히 적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성은 평성과 16회, 상

13) 王力(1980: 102-104)에서는 상고 시기에 거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맞는 것이며, 중고 거성자는 입성에서 변화한 것과 평·상성에서 변화한 두 종류의 기원에서 왔다고 하였다. 또한 상고에서 중고까지 성조의 변화는 상당히 컸는데, 한편으로는 음의 높기와 길이의 혼합된 성격에서 높이 위주로 성격이 변화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長入이 소실되면서 거성으로 변화하여 평·상성에서 변화한 거성자와 합류한 調類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殷煥先(1986: 61)에서는 甲骨文 시대인 殷商代에 이미 거성과 관련된 중국어의 破讀 현상이 존재했음을 근거로 들어 거성이 이미 이 시기에 일종의 調類의 형태로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

성과 30회, 입성과 86회로 通押하고 있는데, 평성과 상성이 입성과 通押하는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거성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입성과 通押하고 있다. 거성과 입성의 86회 通押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祭部和 月部는 通押 54條, 脂部和 質部는 通押 22條, 泰部和 曷部는 通押 6條(또는 7條), 祭部和 質部는 通押 2條, 皆部和 質部 1條로 모두 去聲字와 -t 韻尾 入聲字 사이에서 通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다른 성조와의 押韻 상황이나 四聲別義 현상이 나타난 시간적 층위를 고려할 때, 입성을 비롯한 다른 성조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거성이 하나의 분명한 調類로 형성된 것은 東漢 시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Ⅱ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거성이 상고 시기 자음성의 접사에서 중고 시기 높이의 형태로 변화하였는지의 문제는 상반된 견해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거성의 調值와 그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거성이 분명한 調類로 형성되던 초기부터 하강조의 調值를 가지고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명확한 기록이나 자료가 없어서 상고 시기 거성이 어떤 구체적인 調值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하강조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근거가 있다. 첫째, 王力(1980)에서 명칭으로 미루어 거성을 일종의 하강조로 본 것처럼 “去聲”이라는 명칭은 이 성조가 하강조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명칭은 하강조로 서서히 기류를 低音으로 방출하는 조음 방식과 함께 높은 음이 낮아지고 음의 강도도 약해지며 끝 부분이 통제를 받아 점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청각적 인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平調(平聲)와 上昇調(上聲)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조 체계에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강한 하강조의 성조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이며, 현대의 중국방언에서 하강조가 없는 성조 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¹⁴⁾

14) 현대중국방언 중에서 성조 체계에 하강 성조가 하나도 없는 방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陳章太·李行健主編(1996)에 제시된 普通話 基礎方言 중 湖北省 天門方言에는 하강조가 없는데 각 성조의 調值는 陰平 55, 陽平

다음으로 거성의 調值가 중고와 근대를 거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아니면 하강조로 변화 없이 유지되었는가의 문제이다. 平山久雄(1991: 145)에서는 상고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어의 성조가 일종의 순환적인 추이를 겪었으며 일정 기간 불명확한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확한 단계에서 변별적인 기능을 담당한 것이 성조였는지 또는 韻尾였는지 또는 모음의 긴장 여부였는지 아니면 이들이 결합된 형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唐代 後期 北方語에서는 성조가 변별적으로 존재했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官話祖調值初案”에서는 거성이 이미 低降調에서 상승조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16세기 초의 翻譯凡例에서도 거성은 高平調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성의 調值가 실제로 순환적인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고부터 현대까지 거성이 하강조의 調值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거성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성조의 교체에 따라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四聲別義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고대 시기에 다른 성조보다 유독 문법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본고의 논의를 정리해보도록 하자.

첫째, 상고 시기에 거성이 존재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거성이 다른 성조에 비하여 이후에 출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段玉裁는 고대에 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王力(1980: 103)에서는 入聲韻의 주모음에 長短의 구별을 두어 長入이 거성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며, 周祖謨(1989)에서도 거성이 하나의 조류를 이루어 발전한 것이 다른 성조보다 늦은 시기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거성이 다른 성조에 비하여 늦게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근

13, 上聲 11, 去聲 44, 入聲 324이다. 다만 高平調인 거성이 약간의 하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명확한 하강 성조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성조 체계는 극소수이다.

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先秦韻文에서의 압운 상황이나 諧聲 자료를 통해 보면, 거성이 하나의 독립된 성조를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段玉裁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六書音韻表》에서 “古無去聲”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 상고 시기의 자료에서 각각의 韻部에 속한 調類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다. 周祖謨(1989)에서는 陰聲韻의 之·支·魚部에서는 평성 이외에 먼저 상성이 있었고 이후 거성으로 발전하였으며, 陽聲韻에서는 冬·蒸部에는 상성과 거성은 없고 陽·侵·眞部에는 상성은 있고 거성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고대 중국어에서 거성은 다른 성조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詩經》 등 先秦韻文에서 거성은 평성·상성·입성과 압운이 일어나고 있어서 다른 성조들과 두루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 중에서도 거성과 -t 운미 입성의 밀접한 관계는 특히 주목을 끈다. 이것은 거성의 접사(韻尾)나 調值가 다른 성조들과 유사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음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거성이 四聲別義 현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요인이 되었다. 즉 거성이 다른 성조와 일정 부분 공유한 동질성과 함께 변별적인 調值상의 이질성은 다른 성조의 기능을 분담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거성은 다른 성조에 비해서 나중에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과정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점차 소속된 글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또한 北方官話에서 거성은 다른 성조와는 달리 陰陽으로 분화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는 거성이 이후에 형성된 하강조의 調值를 가졌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하강조는 변별력

15) 平山久雄(1991: 147)에서는 陰聲韻 韻尾가 거성에서 *-ɛ와 같이 과도성과 모호성이 더 강해진 결과 입성 운미 앞의 과도성 성분과 유사해져서 평성·상성과는 달리 거성이 입성과 通押이 잘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거성에서만 과도성이 강해지는 것은 거성의 조치가 低降調(*31)여서 끝 부분이 低음을 내기 쉽도록 목구멍을 긴장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중국어 방언에서도 北京語의 上聲과 같이 저음을 낼 때 목구멍을 긴장시키는 방법을

이 큰 성조로 성조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기식의 감소와 성대의 이완 등으로 인해 음절 후반부에서 성조의 높이가 점차 하강하는 것은 조음의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에서 거성이 다른 성조의 기능을 나누어 가지면서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성이 가지고 있는 하강조의 調値는 거성의 문법적 기능이 쇠퇴한 시기 이후에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하강조라는 調値적 특성은 상고 시기 거성이 초기에 다른 성조의 문법적 기능을 나누어 갖게 된 중요한 요인은 되었지만 일정한 정도의 기능을 가진 후에는 더 이상 문법적 역할을 늘려가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

거성이 가진 다른 성조들과의 유사성과 변별성이라는 성격은 상고 시기와 중고 시기 초기까지 활발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이러한 거성의 문법적 기능은 점차 쇠퇴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고 중국어에서 去聲字에 자음성의 접사 *-s가 붙어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였다면, 이러한 접사가 소실되고 音高 형태의 성조로 변화하는 과정도 거성의 문법적 기능의 쇠퇴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즉 상고 시기에 거성이 *-s와 같은 자음성의 접사를 가지고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했고 이후 이러한 접사가 소실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거성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기능과 쇠퇴 과정에 대하여 더욱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거성의 문법적 기능이 쇠퇴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어에서 어휘 형성의 방식이 통시적으로 변화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성조의 교체에 의하여 품사를 전환하거나 조어의 기능을 하는 방식은 明·淸代까지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상고 시기 이후 중국어의 역사에서 많은 부분 그 유효성을 점차로 상실하고 이와는 다른 조어의 방식이 중국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¹⁶⁾ Baxter & Sagart(1998: 35-36)에서

써서 성대의 진동수를 줄이는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는 상고 중국어에서 형태론적 기제가 매우 빈약했다는 것이 기존에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상고 중국어에서는 생산적이면서 주목할 만한 어휘 형성(word formation) 과정이 존재했다고 하였다. Baxter & Sagart(1998)에서 제시한 상고 중국어의 어휘 형성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6> 상고 중국어 어휘 형성의 유형 (Baxter & Sagart, 1998)

1. 접사화(affixation)
 - ① 접두사(prefix)
 - (1) *N- 또는 유성화 예) 敗 *prats 他動詞/敗 *N-prats 自動詞
 - (2) *k- 예) 勻 *wjin “균질적인”/鈞 *k-wjin “짐수레바퀴”
 - (3) *t- 예) 實 *m-ljit “과일”/質 *t-ljit “실질”
 - ② 접미사(suffix)
 - (1) *-s 예) 乘 *m-ljiŋ 動詞/乘 *m-ljiŋ-s 名詞
 - (2) *-ʔ 예) 張 *trjaŋ “길게 하다”/長 *trjaŋ-ʔ “자라다”
 - ③ 접요사(infix)
 - (1) *-ø-/*-j- 교체 예) 銘 *meŋ “새기다, 비문”/名 *m-j-eŋ “이름”
 - (2) *-r- 예) 出 *thjut “나가다”/黜 *th-r-jut “축출하다”
2. 중복(reduplication) 예) 關關, 窈窕, 參差, 輾轉
3. 합성(compounding) 예) 司工, 司寇, 司徒, 趣馬, 作冊

Baxter & Sagart(1998)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도 많으나, 상고 중국어에서 이처럼 다양한 접사화의 유형과 함께 중복, 합성을 통한 어휘 형성의 방식이 존재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중 접사화(affixation)는 사실상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音變을 통한 조어의 방

16) 孫玉文(2007: 378)에서는 성조의 교체를 통해 조어를 하는 방식이 西漢에서 明·清代에 이르는 시기까지도 여전히 대량의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 역시 성조 교체를 통한 조어 방식이 상고 시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생산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東漢 시기 이후 이러한 방식은 지속적으로 쇠퇴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조어 방식의 변화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식과 대응하는 것인데, 접사화라는 유형을 통해 보다 분석적인 방식으로 音變에 의한 어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萬獻初(2004), 孫玉文(2007) 등과 같은 전통적인 관점에 기초한 중국어 조어법 관련 연구에서도 상고 중국어의 조어 방식의 유형으로 접사화는 인정하지 않으나 고대 중국어의 單字에서 音變이나 變調에 의해 생산적인 조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상고 중국어 單音詞에서 음운적 또는 형태적 방식으로 수행되던 조어의 과정이 쇠퇴하게 된 것은 어휘의 複音詞化 추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郭錫良(1997: 150)에서는 複音詞가 春秋戰國 시기 이미 전체 어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複音詞의 조어 방식은 西周 시기(기원전 11세기~기원전 771년)에 이미 구비되어 있었고, 春秋戰國 시기(기원전 770년~기원전 221년)에는 완비되어 複音詞의 수량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하고 있다. 志村良治(1995: 5)에서는 複音節詞의 증가가 주로 後漢末(25년~22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複音詞化의 추세는 중고 시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¹⁷⁾ 複音詞化는 결과적으로 중국어 어음 및 어휘의 기본 단위를 單音節에서 雙音節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로 單音詞에서 거성에 의해 수행되던 문법적 기능이 複音詞化의 추세에 따라 점차로 쇠퇴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로 보인다.¹⁸⁾

17) 石毓智(2002: 4)에서는 12세기 문헌인 《朱子語類》에서 뽑은 124개 複音詞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5세기~12세기 사이에 複音詞가 94%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중국어에서 複音詞化 추세는 기원전 시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가장 관건이 된 시기는 5세기~12세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8) 王力(1980)에서는 통시적으로 중국어의 어음 체계가 간략화된 것이 어법 구조와 같은 다른 방면에서 보상을 얻었다고 하면서, 複音詞의 대량 출현은 더 이상 복잡한 어음 체계에 의거하여 어휘의 의미를 변별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음 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複音詞化의 발생을 설명하는 견해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呂叔湘(1961)에서는 현대 중국어가 강한 複音詞化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 어음의 변화에 따라 同音字가 많이 생겨난 것이 주요한 원인이며 複音詞化는 일종의 보상 수단이라고 하였다. 志村

이와 함께 거성의 문법적 기능의 쇠퇴는 중국어에서 어순과 같은 통사적 수단이 보다 핵심적인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에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¹⁹⁾ 이러한 통사적 수단의 강화는 음운적 수단의 문법적 기능을 위축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거성의 문법적 기능도 쇠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四聲別義 현상이 쇠퇴하고 去入通押이 급격히 줄어든 시기인 東漢 이후에 통사적 수단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도 입증된다. 또한 거성의 문법적 기능이 쇠퇴하고 통사적 방식이 이를 대체한다는 사실은 중국어가 통사적으로 유형적인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良治(1995)에서도 複音詞化의 증가가 어음 체계의 간략화 및 사회의 변동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거성도 고대 중국어에서 글자의 의미를 변별하고 품사를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거성을 비롯한 음운론적 기제가 상당 기간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음운론적 기제로는 복잡 다양화된 어휘 의미와 어음의 변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휘를 변별하는데 보다 유효하고 강력한 조어 기체인 複音詞化가 음운론적 기제를 점차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 19) Xu(2006)에서는 중국어에서 통사적으로 점차 통사적 수단이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상고 중국어에서는 문장 중 동사와 다른 요소와의 통사적·의미적 관계 및 방향성(orientation)을 나타내기 위하여 통사적 수단뿐 아니라 성조 변환, 聲母의 유성음화, 모음 교체 등의 음운론적·형태론적 수단을 사용하였는데, 1세기 이후 통사적 수단이 다른 수단을 대체하였고 다른 수단들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전치사(preposition)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둘째, 상고 중국어에는 음운·형태적 사역, 어휘적 사역, 통사적 사역의 세 가지 사역 방식이 공존했는데, 과도기인 漢代를 거치며 음운·형태적 사역이 가장 먼저 쇠퇴하고 어휘적 사역이 다음으로 쇠퇴하면서 통사적 사역 방식이 더 발전하게 되었다. 셋째, 상고 중국어에서는 단음절의 동사만으로 동작과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고 여기에는 聲母의 有無聲 등 음운적 수단이 관여하기도 했는데, 漢代 이후 “V₁(동사)+V₂(결과동사보어)” 구조가 빈번히 출현하기 시작하고 이후 분포가 확대되면서 음운적·어휘적 수단은 기반을 잃고 단일동사로 결과 단계를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넷째, 고대 중국어의 否定 체계는 음운적인 특징에 따라 *p/f-계열과 *m/w-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부정 체계도 대명사 체계처럼 통사적 방식이 발달하면서 간략화 되었고 음운·형태적인 방식은 점차 약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거성 변화의 과정에서 거성이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쇠퇴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고 중국어에서 거성이 *-s 접사에서 기원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s 접사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s 접사는 비교적 적합한 비교언어학적 방법에 의해서 재구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대 중국어의 언어 상황과 중국어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성 접사 *-s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둘째, 去聲別義 현상의 과정에서 거성의 문법적 기능이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去聲別義 현상은 고대 중국어에서 거성이 문법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s 접사도 去聲別義 현상에서 그 존재의 타당성을 일부 입증할 수 있다. 去聲別義 현상은 早期 상고 중국어부터 이미 존재했으며, 유추를 통하여 확대되다가 거성의 변화 과정에서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대 중국어에서 거성이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쇠퇴하는 과정은 거성의 성격 및 調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성은 다른 성조에 비하여 나중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변화의 과정에서 안정된 모습과 함께 점차 소속 글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해석에서는 거성이 성조체계에서 변별력이 큰 하강조의 調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즉 기본 성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平調의 평성이나 促急을 주요 성격으로 하는 입성으로는 언어 변화에 따른 어휘 의미와 기능의 다양화를 모두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강조의 변별성이 강한 성조로 이후에 출현한 거성이 기능을 나누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東漢 시기 이후 거성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적

인 성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법적 기능이 쇠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국어에서 複音詞化 현상의 추세에 따라 單字에서의 音變 현상이 쇠퇴하게 된 것과 함께 통사적 수단이 중국어에서 보다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논의한 거성의 다양한 문법적 기능은 고대 중국어에서 음운적·형태적 수단이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 예로 볼 수 있어 중국어가 통사적으로 유형적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고립어의 성격을 가진 언어라고 해도 일정한 정도의 음운적·형태적 기제는 작용하는 것이어서 거성을 비롯한 음운적·형태적 수단에 의한 문법적 기능의 흔적을 고대 중국어가 통합어였음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후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백은희, <문자에 가려진 언어의 진실을 찾아서 — 一字多音 현상을 통해서 본 고대 중국어의 유형학적 특징>, 《中國語文學誌》 37, 2011.
- 愼鏞權, <老乞大諺解書에 나타난 漢語 聲調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中國文學》 57, 2008.
- 李敦柱, 《韓中漢字音研究》, 태학사, 2003.
- 郭錫良, 《漢語史論集》, 商務印書館, 1997.
- 羅常培·周祖謨, 《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 中華書局, 2007.
- 董同龢, 《中國語音史》, 華岡出版有限公司, 1973.
- 萬獻初, 《漢語構詞論》, 湖北人民出版社, 2004.
- 梅祖麟, <四聲別義中的時間層次>, 《中國語文》 第6期, 1980.
- 潘悟云, 《漢語歷史音韻學》, 上海教育出版社, 2000.

- 徐通鏘, <聲調起源研究方法論問題再議>, 《民族語文》 第5期, 2001.
- 舒志武, <從四聲別義看漢語聲調的發展>, 《語言研究》 第4期, 2002.
- 石毓智, <漢語發展史上的雙音化趨勢和動補結構的誕生—語音變化對語法發展的影響>, 《語言研究》 第1期, 2002.
- 孫玉文, 《漢語變調構詞研究(增訂本)》, 商務印書館, 2007.
- 呂叔湘, <現代漢語單雙音節問題初探>, 《中國語文》 第1期, 1961.
-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1980.
- 殷煥先, <上古去聲質疑>, 《音韻學研究》 第二輯, 中華書局, 1986.
- 李方桂, 《上古音研究》, 商務印書館, 1980.
- 李香, <關於“去聲源于-s尾”的若干證據的商榷>, 《音韻學方法論討論集》, 商務印書館, 2009.
- 張日昇, <試論上古四聲>, 《香港中文大學中國文化研究所學報》 1, 1968.
- 張雁, <上、去二聲源于韻尾說不可信>, 《音韻學方法論討論集》, 商務印書館, 2009.
- 丁邦新, 《丁邦新語言學論文集》, 商務印書館, 1998.
- 鄭張尚芳, <漢語聲調平仄之分與上聲去聲的起源>, 《語言研究》 增刊本, 1994.
- _____, <漢語古音和方音中一些反映語法變化的音變現象>, 《樂在其中: 王士元教授七十華誕慶祝文集》, 南開大學出版社, 2004.
- 周法高, <中國古代語法·構詞編>, 《歷史語言研究所專刊》 39, 1962.
- 周祖謨, <四聲別義釋例>, 《問學集》, 中華書局, 1966.
- _____, <漢代竹書和帛書中的通假字與古書考訂>, 《音韻學研究》 第一輯, 中華書局, 1989.
- 志村良治, 《中國中世語法史研究》, 中華書局, 1995.
- 陳振寰, <關於古調類調值的一種假設>, 《音韻學研究》 第二輯, 中華書局, 1986.
- 平山久雄, <漢語聲調起源窺探>, 《語言研究》 第1期, 1991.

- Baxter, W. H. & Sagart, L., "Word formation in Old Chinese", in Jerome L. Packard(ed.), *New Approaches to Chinese Word Formation*,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8.
- Downer, G. B., "Derivation by Tone Change in Classical Chinese",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22, 1959.
- Haudricourt, A. G., "Comment reconstruire le chinois archaïque", *Word* 10, 1954a.
- _____, "De l'origine des tons en vietnamien", *Journal Asiatique* 242, 1954b.
- Karlgren, B., "Tones in Archaic Chinese",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Bulletin 32, 1960.
- Pulleyblank, E. G.,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Asia Major* 9, 1962.
- _____, "Some further evidence regarding Old Chinese -s and its time of disappearance",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36:2, 1973a.
- _____, "Some new hypotheses concerning word families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Vol 1 No 1, 1973b.
- Tsu-lin Mei, "Tones and tone sandhi in 16th century Mandarin",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5:2, 1977.
- Xu Dan, *Typological Change in Chinese Synta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詩經 楚辭》, 上海古籍出版社(1998).

《經典釋文》, 中華書局 影印本(1983).

《四聲通解》, 奎章閣 所藏本.

《普通話基礎方言基本詞彙集》, 陳章太·李行健主編, 語文出版社(1996).

<中文提要>

本文從語言類型學的觀點出發，對在去聲變化的過程中，去聲帶有的語法功能逐漸衰退的過程進行了考察。

首先，對於在上古漢語裏，去聲是否起源于*-s韻尾，存在着相反的看法。雖然不能說有能夠證明*-s韻尾存在的明確證據，但因*-s韻尾是依照比較適合的比較語言學的方法而構擬成的形態，所以通過此點，可以合理的說明古代漢語的語言情況和漢語的變化樣態。基于這一點，關於去聲韻尾*-s的存在與否的討論是值得矚目的。

第二，對於去聲在去聲別義的過程中，其語法功能是如何發展的又是如何衰退的進行考察。四聲別義是上古漢語構詞的一種方式，其中去聲別義現象是最重要。去聲別義現象，是在古代漢語中，顯示去聲執行語法功能的典型事例。*-s韻尾的存在，其可信性也通過去聲別義現象在一定程度上得到了證明。可以看出，去聲別義現象從早期上古漢語開始便已存在，其發展，在通過類推而被擴大後又在去聲變化過程中出現了衰退。

第三，去聲語法功能的衰退過程，應視爲是與古代漢語去聲的性質及調值的變化有着密切關係的。去聲相對於其他的聲調，是較晚出現的聲調。在之後的變化過程中，顯示出與穩定的樣貌一起，其所屬字也在逐漸的不斷增加的局面。由此可見這是與去聲本身是在聲調系統中帶有着強大辨別力的降調調值這一事實有密切關係。換而言之，可以這樣認爲：因不論是曾具有過基本聲調性質的平調平聲還是以促急爲主要性質的入聲，都無法將語言變化中其他的詞彙意義的多樣化表現得淋漓盡致，所以，雖出現得較晚但其自身帶有鮮明降調性辨別力的去聲得到了一定的語法功能。但在這之後，去聲的語法功能又出現了逐漸衰退的現象。這種衰退過程，是與構詞方式的變化及句法功能在漢語中逐漸成爲核心語法功能的過程有着密切關係的。

주제어 : 去聲, 語言類型學, *-s 韻尾, 去聲別義, 語法功能, 調值, 降調